



동국대학교일산병원 News Letter

2018년 노사, 임금협상 상견례 개최

동국대학교일산병원 노사가 올해 임금협상 상견례를 갖고 본격적인 협상에 돌입했다.

동국대학교일산병원 노사는 지난 19일 본원 4층 제 2회의실에서 이형열 행정처장과 권범선 진료부원장, 권준성 노조 지부장을 비롯한 노사 교섭위원 13명이 참석한 가운데 2018년도 임금협상 상견례를 개최했다.

사용자 측 대표위원과 근로자 측 대표위원의 인사를 시작으로 임금 협약 체결을 위한 산별현장 교섭원칙 합의서에 관한 의견을 교환했다. 노사는 향후, 교섭 일정과 합의서에 관한 수정 의견 등을 간사 간 협의를 통해 세부논의를 진행할 예정이다.

이형열 행정처장은 “병원을 둘러싼 외부 환경이 힘든 시기이지만, 노사 모두 상생과 타협의 정신으로 앞으로 진행될 교섭이 순탄하게 진행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Happy Hospital 시즌 10 ‘공감더하기 배려나누기’ 캠페인 개최

동국대학교일산병원은 지난 7월 19일 ‘Happy Hospital Season 10’ 캠페인 선포식을 개최했다.

‘2018 공감더하기, 배려나누기’ 캠페인은 치열한 의료경쟁에서 공감과 배려가 이루어지는 친절문화 정착, 의료진과 환자 간 소통강화를 통한 환자안전을 위한 공감문화 조성을 위한 캠페인이다.

캠페인 선포식을 위해 양·한방 병원장님 외 보직자들이 참여하여 병원 1층 정·후문에서 출근하는 직원들에게 커피와 쿠키, 캠페인 배지를 나누며 하이파이브로 직원들을 격려했다. 또한, 8월 한 달 동안 공감 배려를 주제로 공모전을 진행하여 시상할 예정이다.

2008년 처음 시작한 Happy Hospital 캠페인은 내·외부 고객을 위한 다양한 활동으로 올해로 열 번째를 맞이했다.



정형외과 양재준 교수, 척추모형을 통한 수술법 강좌 및 모형 실습 개최

동국대학교일산병원 정형외과 양재준 교수가 최근 척추모형을 통한 수술법과 실습에 대한 강좌를 진행했다.

이날 강좌는 존슨앤존슨 메디칼 드류 신테스(Depuy Synthes)사 주관으로 경추 수술 술기에 대한 강의와 함께 척추모형을 통한 수술 실습을 진행했다.

이번 실습에는 수술실 간호사 및 전공의를 포함하여 약 40여 명이 참석했으며, 참가자들은 간접적으로 수술을 실습해보며 실제 수술에 필요한 기구와 수술 과정을 경험해 볼 수 있는 소중한 시간을 가졌다.

양재준 교수는 이번 강좌를 통해 “앞으로도 실습중심의 세미나를 통해 더욱 안전하고 효과적인 치료를 위한 연구개발과 정형외과 역량을 높이는데 주력하겠다.”고 말했다.



직원식당 ‘초복’ 이벤트

동국대학교일산병원 영양팀에서는 지난 17일 초복을 맞이하여 직원들을 위한 특식이벤트를 마련했다.

병원 측의 지원으로 준비된 이번 특식메뉴로는 무더위에 고생하는 직원들을 위해 ‘새싹삼 삼계탕’과 ‘육개장’을 준비했으며, 후식으로 시원한 수박을 제공하며 노고를 위로했다.

‘삼복’은 중국 진나라 때부터 시작된 것으로 일 년 중 무더위가 가장 기승을 부리는 시기여서 삼복더위라는 말이 나왔다. 또, 하지로부터 셋째 경일을 초복, 넷째 경일을 중복, 입추 후 첫째 경일을 말복이라고 한다. 초복은 삼복(三伏) 가운데 첫 번째 찾아오는 복날로 무더운 여름을 나기 위해 몸보신을 위한 삼계탕을 비롯해 보양식을 먹는 풍습이 있다.

이번 이벤트를 준비한 영양팀은 “직원식당에서 준비한 초복 이벤트를 시작으로 올여름 무더위를 이겨내길 바란다.”고 전했다.

